



미국 나파밸리에 위치한 마르타스 빈야드 전경.

/나라셀라

미국 최초의 싱글빈야드 와인



안상미 기자
Why, wine

<72> 와인브랜드 스토리 ④ 하이츠셀라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도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오크빌(Oakville) 지역에서 집이 매물로 나왔다. 포도밭 인근에 딸린 집이었는데 탐과 와이프 마르타는 포도밭은 그대로 둔 채 집만 내놨고, 이를와이너리 하이츠셀라를 설립한 조 하이츠가 사들여 살게 됐다.

오크빌은 최고의 포도밭이 몰려있기로 유명한 곳. 하지만 탐과 마르타는 포도밭이 있어도 직접 와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친해진 조 하이츠는 그들의 포도밭에서 나오는 포도를 모두 하이츠셀라에 달라고 한다. 탐과 마르타 부부는 조 하이츠에게만 포도를 주기로 약속하는 대신 전제 조건을 붙였다. 그들의 밭에서 나온 포도로 와인 1배럴을 만들어 달라는 것. 1배럴(158L)은 와인 300병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다.

조 하이츠는 처음에는 탐과 마르타 부부를 위한 와인 1배럴을 제외하고는 다른 밭에서 나온 포도들과 섞어 기본급



마르타스 빈야드 카베네 소비뇽(왼쪽), 나파밸리 카베네 소비뇽. /나라셀라

와인인 '나파 밸리 카베네 소비뇽'을 만들 생각이었다. 근데 이 1배럴을 만들고 보니 와인의 맛과 향이 너무나 뛰어났다. 단일 포도밭의 포도만으로 만들어진다는 미국 최초의 '싱글 빈야드' 와인은 그렇게 탄생했다. 바로 '마르타스 빈야드 카베네 소비뇽' 1966 빈티지다.

싱글 빈야드 와인은 단일 밭의 포도로 만들다보니 개성이 뚜렷하다. '마르타스 빈야드 카베네 소비뇽' 역시 고유의 고상한 민트향으로 유명하다. 1974 빈티지는 와인 스펙테이터가 선정한 '20세기의 와인' 12선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미국 와인으로 '20세기의 와인'에 든 것은 '마르타스 빈야드 카베네 소비뇽'을 포함해 단 두 개뿐이었다.

'마르타스 빈야드 카베네 소비뇽'은 물론 기본급인 '나파 밸리 카베네 소비뇽'도 다른 품종을 단 항방울도 섞지 않

고 순수하게 100% 카베네 소비뇽으로만 만든다.

나파 밸리의 거의 모든 와이너리들이 카베네 소비뇽 와인을 만들지만 하이츠셀라 처럼 100%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른 품종을 섞지 않고는 카베네 소비뇽이 갖는 강한 탄닌을 컨트롤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 하이츠는 해결책으로 다른 품종이 아니라 시간의 힘을 빌렸다. 다른 와이너리들이 카베네 소비뇽을 오크통에서 길어야 2년 가량 숙성 후 병입하는 것에 비해 하이츠는 4년간 오크통 숙성을 한다. 병입한 후에도 다시 1년간 셀러에서 숙성시켜 최장 5년의 시간을 거쳐 내놓기 때문에 처음부터 깊고 밸런스 있는 풍미를 보여준다. 장기 숙성력도 탁월하다.

여기에 레드와인 양조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잿산발효 혹은 유산발효도 하지 않는다. 대신 대형 오크통으로 와인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 부드럽지만 생생한 산미를 살리도록 했다.

독일계 이주민의 후손답게 조 하이츠의 마이스터 다운 성품은 와인 라벨에서도 드러난다. 라벨에는 장식적인 요소는 일체 없고, 와인별로 별 차이 없이 와인을 살펴보는 장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라벨은 첫 빈티지부터 현재 빈티지까지 거의 바뀌지 않았다.

/smahn1@metroseoul.co.kr



자료 협조

여름 겨냥 친환경 '포레백'

빈폴액세서리 '지속 가능성' 구현 미국·유럽서 친환경생산 인증 획득 빈폴 30주년 헤리티지 체크패턴 적용



빈폴액세서리 20SS 포레백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빈폴액세서리가 핵심 가치인 '지속 가능성'을 구현한 여름 시즌 대표 아이템 '포레백'을 올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숲'을 뜻하는 프랑스어 'Foret'에서 이름을 따온 '포레백'은 지난해 여름 시즌 첫 출시 때 지속가능성의 의미와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포레백의 소재는 미국 그린가드, 유럽 오프텍스에서 친환경 생산 인증을 획득했을 정도로 친환경적이다. 소재 염색을 하지 않고 열 코팅 처리해 폐수 발생이 거의 없는 등 공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최소화했다.

2020년 여름 시즌 포레백은 전년 인기가 좋았던 오가니 베이지 컬러와 함께 김업 체크 패턴은 신규 출시됐다. 김업 체크 포레백은 빈폴 30주년 헤리티지

지 체크 패턴을 적용했다. 빈폴 특유의 감성을 더했고 그린 컬러를 입혀 한층 산뜻하고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준다.

포레백은 메쉬 소재인 데다 금속 장식을 최소화하여 무게가 매우 가볍고 통기성이 좋다. 내구성이 강할 뿐 아니라, 향균, 방오, 생활방수 기능도 갖췄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LG생건, 보습·촉촉 원하는 피부표현 돕는다

'코드글로컬러 프라이머' 기획세트

LG생활건강이 '코드글로컬러 프라이머 기획세트'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드글로컬러의 프라이머 라인이 국내 프리미엄 채널 기준 프라이머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기념하기 위해서다.

이번 순위는 시장조사기관 칸타월드패널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국내 프리미엄 채널을 기준으로 산출해 발표한 결과로 코드글로컬러는 이번 성과를 기념해 기획세트를 선보인다.

이번 기획세트는 코드글로컬러의 프라이머 'L.픽스-온 프라이머' 'M.하이드로 프라이머' 'N.피치블랑 프라이머' 'G.루미에르 프라이머' 총 4종으로 구성됐다.

대표 제품인 'L.픽스-온 프라이머'는 매끈하고 보습한 피부표현을 해주고, 파운데이션이 오랜 시간 무너지지



LG생활건강의 코드글로컬러 프라이머 4종 기획세트 제품. /LG생활건강

않도록 지속력과 밀착력을 높여준다. 이외에도 'M.하이드로 프라이머'는 삼중 히아루론산액을 함유한 하이드로캡슐이 메이크업 전 피부에 수분을 채워 촉촉한 수분광 피부를 만들어주며 'N.피치블랑 프라이머'는 뽀얗고 생기있는 톤업효과와 자외선차단 기능을 겸비해 파운데이션 없는 메이크업을 도와준다. /박미경 기자 miyung96@

가볍고 시원한 여름슈즈... 메쉬 소재로 착화감 '굿'

블랙야크키즈

'스포트라이트 슈즈 컬렉션' 출시 가성비+디자인 슬림은 '제키B' 발가락 보호 코막이센들 '트레인'

블랙야크키즈가 늦어진 개학으로 준비했던 새 신발보다 가볍고 시원한 여름 신발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스포트라이트 슈즈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들은 운동화와 샌들의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됐으며,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적 특징은 물론, 바닥 전면이 고무를 사용해 뛰어난 접지력으로 아이들의 안전까지 생각했다.

운동화 타입의 대표 제품 '레스터'는 가벼운 무게로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야외활동에도 적합한 제품이다. 바람이 잘 통하는 메쉬 소재를 사용해 시원한 착화감을 선사하며, 보아핏 시스템(Boa Fit System)이 적용돼 빠르고 정교한 피팅이 가능하다. 색상은 스쿨룩부터 트레이닝 세트까지 모두 어울리는 네이비와 화사한 스타일링에 꼭 맞는 핑크로 선보인다.

'제키B'는 가성비 좋은 슬림한 디자인의 운동화로, 벌어지기 쉬운 구조로

아이들이 편하게 신고 벗을 수 있다. 바람이 잘 통하는 메쉬 소재를 사용해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색상은 베이직한 느낌의 블랙과 그레이로 선보인다.

샌들 타입의 대표 제품 '트레인'은 아이들의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신체활동을 위한 코막이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발가락을 보호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보아핏 시스템이 적용돼 다이얼을 감으면 빠르고 쉽게 정교한 피팅이 가능하다.

/조효정 기자



블랙야크키즈 20SS 화보